「지방정부연구」 제23권 제1호(2019 봄): 209-240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Vol.23 No.1 (2019 Spring)
http://dx.doi.org/10.20484/klog.23.1.9

#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 리질리언스 시각을 통한 체계적 접근의 시도*

한 그 루**
하 현 상***

**국문요약**

오늘날 마을공동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며 마을공동체의 성과와 활성화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지속되지 못하고 소멸하거나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면서 자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금까지 주로 논의되었던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와 활성화에 관한 연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생력이 있는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리질리언스 이론(Resilience Theory)을 적용하여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한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역자원과 특성의 활용이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경제적 성과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자체적 재원조달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고 사회적 가치의 지속적인 창출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인 주민의 참여와 역량이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궁극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에는 인적자원, 지역자원과 특성의 활용, 자체재원 조달 능력과 같은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제고시켜서 마을공동체 사업의 리질리언스를 높이고 지속성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 연구는 확인해주었다. 본 연구는 리질리언스 시각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를 처음으로 시도한 경험적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마을공동체 사업, 리질리언스, 지속성, 경제적 성과, 사회적 가치**

## Ⅰ. 서론

오늘날 저성장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논란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공동체

*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힘.
** 제 1저자
*** 교신저자

사업도 많지만, 대부분의 마을공동체 사업들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서 추진되고 있으며, 재정지원이 중단되면 자생력을 갖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마을공동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공동체성이 오히려 더 심각하게 파괴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배진영, 2010; 염돈민, 2010; 김광선, 2011; 유정규, 2011; 박병춘, 2012). 그러나 마을공동체 사업이 저성장 사회의 대안으로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자생력을 가지고 지속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도시와 농촌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 지속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논의되고 있지만, 지속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존연구를 보면,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특정 사례를 대상으로 마을공동체의 활성화 과정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해 낸 연구들과(박종관, 2012; 원준혁 외, 2012; 김이수, 2015; 이석현 외, 2013; 이재완, 2014; 여관현, 2015; 이수연, 2013; 신중진 외, 2012) 마을공동체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성공 요인을 도출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전지훈 외, 2014; 문종화, 2012; 최희영 외, 2014; 이기태 외, 2016; 김찬동, 2012). 그러나 마을공동체 사업이 자생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사업을 저해하는 재정적 한계, 주민 간 갈등, 물리적 시설과 행정적 서비스의 한계 등을 해결하여 공동체 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최진식, 2015; 하현상 외, 2016). 따라서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이 자생력을 가지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처럼 최근에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이 심각하게 논의되면서 많은 학자와 활동가들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구체적인 대안 모색을 강조하고 있지만, 경험적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선언적 주장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도출하고 구체적인 함의를 제시할 수 있는 리질리언스 이론(Resilience Theory)을 적용하여 보다 실질적인 정책적 함의를 제시해보고자 한다.[1] 구체적인 것은 후술하겠지만 리질리언스 이론(Resilience Theory)은 취약한 환경과 저해요인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이 원래의 기능과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지속성을 갖고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영향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론이다(하현상 외, 2014; 전대욱 외, 2013). 리질리언스 이론은 마을공동체가 인적, 물리적, 경제적, 행정적 영역 등의 다양한 하부영역(sub-system)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런 하부영역들이 리질리언스의 수준을 설명하는 내구성

1) 리질리언스(resilience)는 회복력, 회복탄력성, 회복가능성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고 있지만, 리질리언스가 갖는 의미를 적실성 있게 담아내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리질리언스(resilience)'로 사용하고자 한다. 리질리언스(resilience)의 개념적 의미를 간략하게 제시하면, 내·외부적 충격(shock)이나 영향으로 개인이나 조직 및 사회적 변화와 혼란이 발생할 때 붕괴되거나 중단되지 않고 원래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거나 회복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리질리언스 이론은 지역 단위의 지역경제, 자연 및 인적 재난, 자연 생태계, 조직단위의 기관, 기업, 개인 단위의 장애인, 노인, 어린이, 기계장치 등과 같은 다양한 분석대상에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오늘날, 심리학, 교육학, 의학, 공학, 생태학, 환경공학, 행정학, 정치학, 사회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다.

(Robustness), 자원부존성(Resourcefulness), 신속성(Rapidity), 가외성(Redundancy)을 잘 갖추어서 마을공동체의 성과변화를 긍정적으로 만들어낼 때 자생력을 가진 마을공동체로서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이론은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영향요인들을 도출할 수 있는 유용한 이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보다 객관적이고 일반화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기 위해서 특정 지역이나 사례가 아닌 전국 마을공동체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리질리언스 이론을 토대로 특정 요인에 제한하지 않고 마을공동체 사업의 하부시스템을 설계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려고 시도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의 의의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 문제에 리질리언스 이론을 적용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 먼저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과 리질리언스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이론적 모델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과 분석절차를 통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영향요인을 리질리언스 이론의 시각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서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가치로 구분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을 분석하고 리질리언스 시각에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 Ⅱ. 이론적 설명과 선행연구 검토

## 1.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

마을공동체는 연구자에 따라 마을만들기, 지역공동체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마을공동체가 내포하고 있는 개념적 의미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마을공동체의 개념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마을이라는 일정한 지역 내에서 구성원들 간의 친밀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을 마을공동체로 정의하고 있다(최병두, 2000; 최승호, 2009; 박병춘, 2012; 전대욱 외, 2012; 김현호, 2013; 최인수 외, 201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4; 여관현, 2014; 김찬동, 2012). 구체적으로, 마을공동체는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유대를 형성하면서 일정한 지역을 공유하며, 주민들 간에 공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을 내포한다(여관현, 2014; 김찬동, 2012; 이재열, 2006; 주상현, 2014; 하현상 외, 2017; 전대욱 외, 2012; 박병춘, 2012; 김수영 외, 2014; 최인수 외, 2014; 박종관, 2012).

이러한 마을공동체의 사업이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동체 사업에서 성과로 설정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편익이 적어도 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만큼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연구들에서는 일반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를 공동체 활동 과정에서 형성되는 마을의 정체성 형성, 공동체 결속력 강화와 같은 사회적 가치와 일자리 창출, 매출액, 순

이익과 같은 경제적 성과로 구분해서 측정하고 있다(하현상 외, 2017).

마을공동체 사업이 이들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면서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인적, 경제적, 물리적 조건들의 협력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장기적 시각에서 이들 여건을 종합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Dale, et al., 2008). 먼저 인적자원은 주민들의 참여와 사업운영역량의 관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을공동체 사업이 갈등이나 경제적 충격에도 잘 버티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자본을 강화시키고 상호작용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Dale, 2013).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먼저 주민들 간의 소통과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을때 신뢰와 협력활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지역주민들 간의 공동체 결속력이 높아지고 지역사회에서 함께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2] 주민역량도 마찬가지로 지역성을 반영한 사업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업운영 역량을 축적하고 적극적인 파트너쉽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더욱 발전하는 것이다(Aigner, et al., 1999). 그리고 경제적 자원과 물리적 자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의존성을 최소화하면서 자기 주도적인 자생적 생활경제 메커니즘을 확대하여 마을의 자연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고 재생에너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에너지와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정적이거나 불필요한 것들을 긍정적이고 활용성이 높은 자원으로 전환하고 지역사회가 자기 조직화 역량을 높여 스스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사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주민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마을에 대한 정체성을 강화시키고 공동체 결속을 높이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또한, 지역경제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고 매출액과 순이익도 더욱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리질리언스 시각에서 지역사회의 행정서비스, 인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 물리적 자원을 포함한 핵심 인프라가 마을공동체 사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편익의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영향요인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 2.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과 리질리언스의 연계

### 1) 마을공동체 사업의 리질리언스 개념

리질리언스(resilience)를 최초로 언급한 Holling(1973, 1995)은 생태학적 시각에서 자연생태계가 자연적·인위적 재난이나 환경변화로 인하여 파괴에 직면했을 때, 그 충격을 흡수하며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리질리언스를 정의하였다(Holling, 1973). 그러나 리질리언스 이론(resilience theory)은 자연적·인적 재난, 지역경제 붕괴 등과 같은 다양한 자연적·경제적 충격뿐만 아니라 심지어 트라우마와 같은 심리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조직이나 개인이 원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지속성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이론이다.[3]

---

2) 이처럼 사회적 자본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참여와 소통을 형성하는 원인적 행위이자 신뢰와 공동체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결과적 산물로서 작용한다.

마을공동체 사업도 마을의 자연자원과 주민역량, 경제 상황, 제도적 지원과 같은 다양한 내·외부 환경에 의해서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마을공동체 사업은 학습과 네트워크를 통한 자기조직화와 혁신을 강조한 사회-생태학적 리질리언스(Socio-ecological resilience) 시각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사회-생태학적 리질리언스는 자연환경에 국한하여 설명하는 생태학적 리질리언스가 간과하고 있는 인간의 학습과 행위에 기반한 자기조직화와 적응적 거버넌스를 통하여 적응력(adaptability)과 변혁력(transformability)을 강화시켜서 지역사회의 리질리언스를 높일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다(Folke, 2006; 하현상, 2014). 따라서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을 설명하기 위한 리질리언스 이론은 사회-생태학적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이 연구는 왜 어떤 마을공동체 사업은 메르스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나 경기침체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폐업했지만 다른 사업은 원만하게 운영을 하였고, 왜 어떤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공동체가 완전히 파괴되고 사업도 폐업하는 반면에 다른 사업은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는 가에 대해서 주목하고자 한다. 즉,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의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사업의 성과의 긍정적인 변화가 지속성을 갖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성과의 변화에 어떤 요인들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그렇다면 마을공동체 사업이 높은 리질리언스를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마을공동체 사업이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 경제적 편익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경제적 편익은 사업의 매출액 증가와 일자리 창출이 대표적인 예이며, 사회적 가치는 주민들의 공동체 결속, 삶의 질과 신뢰 제고 등 공동체성의 증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박병춘, 2012). 마을공동체 사업은 해당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들을 사용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지역의 경기침체, 실업, 소득감소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경제적인 편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여건의 한계로 인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편, 사회적 가치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과 주민조직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핵심적 토대로서 지역 문제해결을 통한 공동의 유대감과 결속력 강화, 신뢰 형성, 지역 정체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성희자 외, 2006; 최인수 외, 2014). 마을공동체 사업이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결속력과 유대감이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을 때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갈등이 발생해도 공동체적 결속력과 신뢰를 기반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해결책을 자발적으로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예측 불가능한 많은 저해요인의 영향을 극복함으로써 경제적 편익과 사회

3) 오늘날 리질리언스는 공학, 심리학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행정학에서는 사회-생태학적 시각에서 주로 접근하고 있다. 공학적 리질리언스는 기계나 시스템이 사고나 충격에도 고장 나거나 파괴되지 않고 신속하게 원래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회복되는 정도를 의미하며 심리학적 리질리언스는 어려운 환경이나 심리적 충격에도 일상의 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역량의 일체를 의미한다. Folke(2006)가 주장했던 사회-생태학적 리질리언스는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적 가치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어야 한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불안정한 특성을 보이거나 적실성 있게 기능을 못 하게 되면 경제적 편익과 사회적 가치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창출되지 못하고 급감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높은 리질리언스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반면에, 갑작스러운 재난, 경기침체에도 해당 마을공동체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면서 경제적 편익을 창출하고 사회적 가치도 활발하게 생산한다면 리질리언스가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마을공동체 사업이 높은 리질리언스를 가졌을 때 마을공동체 사업은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 2) 마을공동체 사업의 리질리언스(Resilience) 분석체계

(1) 마을공동체 사업의 리질리언스 평가 기준(4Rs)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리질리언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사업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의 리질리언스를 분석하기 위해서 '4Rs'로 명명되는 4가지 평가 기준인 내구성(Robustness), 자원부존성(Resourcefulness), 가외성(Redundancy), 신속성(Rapidity)을 척도로 활용한다(Tierney & Bruneau, 2007; Lee, 2013; 하현상 외, 2014). 마을공동체 사업의 리질리언스에 대한 각 평가 기준을 설명하면, 내구성(Robustness)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해 심각한 갈등이나 매출 급감 등에 의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폐업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역량을 말한다. 즉 마을공동체 사업이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주민들 간의 높은 신뢰, 합리적 리더십, 운영전략과 내규 등의 안전장치들이 잘 구축되어 있어서 공동체 사업을 저해하는 요인이 심각하게 영향을 미쳐도 손실과 갈등을 최소화시켜서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한다.

자원부존성(Resourcefulness)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저해하는 요인이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을 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정보수집과 학습을 통하여 문제해결 기제를 모색하고 필요한 다양한 인적·재정적·물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하현상 외, 2014). 마을공동체 사업이 높은 자원부존성을 갖기 위해서는 물질적·기술적인 자원의 원활한 공급과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하며, 이런 자원과 능력을 능률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기 위한 인적자본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원부존성은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인에 대해 빠르게 대응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기조직화(self-organizing)와 혁신(innovation) 능력을 포함한다.

가외성(Redundancy)은 공동체 사업이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물리적 인프라, 인력, 예산 등을 가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비효율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리질리언스 이론에서는 중요한 기준으로 강조되고 있다(Tierney & Bruneau, 2007). 마을공동체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여분으로 더 많이 보유하고 있거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을 다양하게 구성해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핵심기능을 무리 없이 작동하도록 하여 리질리언스를 구현하는 것이다(하현상·이석환, 2016).

신속성(Rapidity)은 마을공동체 사업이 폐업이나 중지의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신속하게 대

안을 모색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하현상 외, 2014). 마을공동체 사업이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기 전에 신속하게 사업을 살리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거나 필요한 자원들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2) 마을공동체 사업의 구성체계[4)]

마을공동체 사업의 리질리언스를 평가하기 위해서 4Rs을 적용하지만 다양한 특성을 가진 복잡한 지역사회에 획일적으로 4Rs를 적용하여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리질리언스 이론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구성체계를 토대로 각 구성체계별로 4Rs를 적용하여 리질리언스를 분석한다.[5)] 기존의 리질리언스 연구들을 살펴보면, 마을공동체 사업의 기반이 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체계를 물리적,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조직적 하부시스템으로 구분하고 이들 구성체계의 구축이 4Rs를 체계적으로 잘 갖추고 있을 때, 리질리언스 평가 기준인 4Rs가 최적화되기 때문에 마을공동체 사업의 리질리언스가 높다고 설명한다(하현상·이석환, 2016).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지역사회의 구성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의 구성체계를 인적자원, 물리적 자원, 경제적 자원, 행정서비스로 구분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인적자원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이재완, 2014; 이인숙, 2015; 하현상 외, 2017). 주민들과 주민대표의 역량이 부족하거나 참여가 소극적이고 갈등이 발생할 경우, 마을공동체 사업은 중단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마을공동체 사업을 운영하는 주민, 활동가, 전문가 등 사업을 이끌어가는 주체들의 역량과 주민과 주민조직의 참여 정도를 중요한 인적자원의 구성요소로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은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생태계를 조성하여 마을공동체가 직면하는 다양한 갈등과 장벽을 극복하게 하는 메커니즘으로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사업은 각 지역사회의 특성과 고유성을 기반으로 추진하며, 본질적으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김학실, 2014). 따라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한 지역의 특성과 자원, 충분한 거점 공간 등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한 중요한 구성요소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역자원과 물리적 기반시설을 마을공동체 사업의 중요한 물리적 자원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김수영 외, 2014).

---

4) 이 연구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한 지역사회의 구성체계'를 '마을공동체 사업의 구성체계'로 명명하여 사용한다.

5) Renschler et al(2010)은 마을공동체 활동이나 사업의 기반이 되는 지역사회의 사회·환경적 체계를 인구속성(Population and Demographics), 환경과 생태계(Environmental/Ecosystem), 조직화된 정부 서비스(Organized governmental services), 물리적 기반시설(Physical Infrastructure), 생활방식과 지역 역량(Lifestyle and Community Competence), 경제 발전(Economic Development), 사회문화적 자원(Social-Cultural Capital)의 7가지 시스템 구성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Frankenberger et al(2013)의 연구에서는 인적 자산(Human assets), 경제적 자산(Economic assets), 자연적 자산(Natural assets), 물리적 자산(Physical assets), 정치적 자산(Political assets)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Howell(2013)은 경제적, 환경적, 거버넌스, 기반시설, 사회적 시스템의 5가지의 시스템으로 구분하여 사회-환경 시스템을 설명하였다.

경제적 자원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재원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자원은 마을공동체 사업에 도움을 주는 정부의 재정지원 정도와 자체재원 조달 능력을 포함한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통하여 추진하기도 하지만 정부의 공모사업으로 재정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이 중단될 경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지속시키지 못하고 예산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마을공동체 사업이 중단되거나 폐업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최인수·전대욱, 2014; 하현상, 2017). 따라서 마을공동체 사업은 재정환경과 흐름이 안정적이어야 하며, 이들 경제적 자원이 마을공동체 사업의 리질리언스를 결정하는 중요한 구성체계로서 역할을 한다. 한편, 정부가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련된 최적화된 행정적인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지 여부도 마을공동체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성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추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허가를 포함한 다양한 규제와 복잡한 절차를 원활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마을공동체 사업의 구성체계**

| 구성체계 | 내용 |
|---|---|
| 인적자원 | 주민 및 주민조직의 역량과 참여 |
| 물리적 자원 | 거점 공간의 충분성, 지역의 특성과 자원 |
| 경제적 자원 | 정부의 재정지원 정도, 자체재원 조달 능력 |
| 행정적 서비스 | 정부 부처와의 소통, 제도적 인프라 |

즉, 마을공동체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적, 물리적, 경제적 자원과 행정적 서비스가 각 영역에서 높은 내구성, 자원부존성, 가외성, 신속성을 가질 때 마을공동체 사업은 높은 리질리언스를 가질 수 있으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역사회가 이들 4개 구성체계에서 4Rs가 모두 좋을 수는 없지만, 내구성, 자원부존성, 가외성, 신속성이 모두 고르게 좋을 때 해당 마을공동체 사업의 리질리언스가 가장 높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마을공동체 사업이 높은 리질리언스를 갖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한 4개 영역의 지역사회 구성체계가 4Rs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을 때 높은 리질리언스를 가질 것이다.

## 3. 선행연구 검토

선행연구는 사례연구와 계량연구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마을공동체에 관한 선행연구는 사례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이들 사례연구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운영한 특정 사례의 과정을 분석한 연구(김학실, 2014; 김찬동, 2012; 여관현, 2013; 2014; 2015; 2017; 신중진 외, 2012; 전지훈 외, 2014; 박태정, 2014)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체 사업의 성공 요인을 분석한 연구(김수영 외, 2014; 박병춘, 2012; 송인하, 2010; 문종화, 2012)가 주로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에서는 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와 역량 강화, 대표자의 리더십, 커뮤니티 매개공간 및 자연적 자원을 포함한 물리적 자원확보, 중간지원조직의 지원, 공모사업에 의한 동력확보 등을 강조하고 있다(하현상 외, 2017).

한편,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계량연구는 특정 사업이나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만족도, 사업성과에 대한 영향요인들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참여와 경제적 성과의 관계, 공동체 역량이 주민들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치단체의 노력이 주민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하였다(양덕순 외, 2008; 김정태, 2014; 김이수, 2015; 강기호 외, 2015; 진재문, 2014; 이석현 외, 2013; 박미규 외, 2015; 이왕기 외, 2014; 전지훈·홍은일, 2018; 이종수, 2018). 한편, 주민들의 정책 인지도가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공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으며(이재완, 2014), 주민들의 참여와 공동체 의식이 공동체의 배타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성희자 외, 2013). 이들 연구에서 강조하는 영향요인들을 보면, 주민참여와 주민 간 상호작용, 사회적 자본, 자체재원 조달 능력, 지역자원 활용, 담당 공무원이나 전문가와 같은 지원조직의 참여와 지원이 중요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김이수, 2015; 이재완, 2014; 하현상 외, 2017).

이처럼 많은 사례연구와 계량 연구는 공동체 사업의 성공, 만족도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연구하는 주제가 많았다. 하지만 이런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특정 지역이나 사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전국의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기존의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한 연구들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단기간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만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정부의 재정지원이 끝나면 폐업하거나 중단되면서 일시적 성과가 아니라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지속성을 가지고 활발하게 추진 및 운영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게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단순하게 마을공동체 사업의 단기간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공동체 사업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지속성을 실질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는 정책적 함의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는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의 이러한 한계점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전국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리질리언스 시각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의 구성체계를 설계하여 체계적으로 분석모델을 설계하였다. 리질리언스 이론(Resilience theory)은 오늘날 마을공동체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환경, 재난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가능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하현상 외, 2014). 따라서 본 연구는 리질리언스 시각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사업의 지속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을 실질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함의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 Ⅲ. 연구모델과 가설

## 1. 연구모델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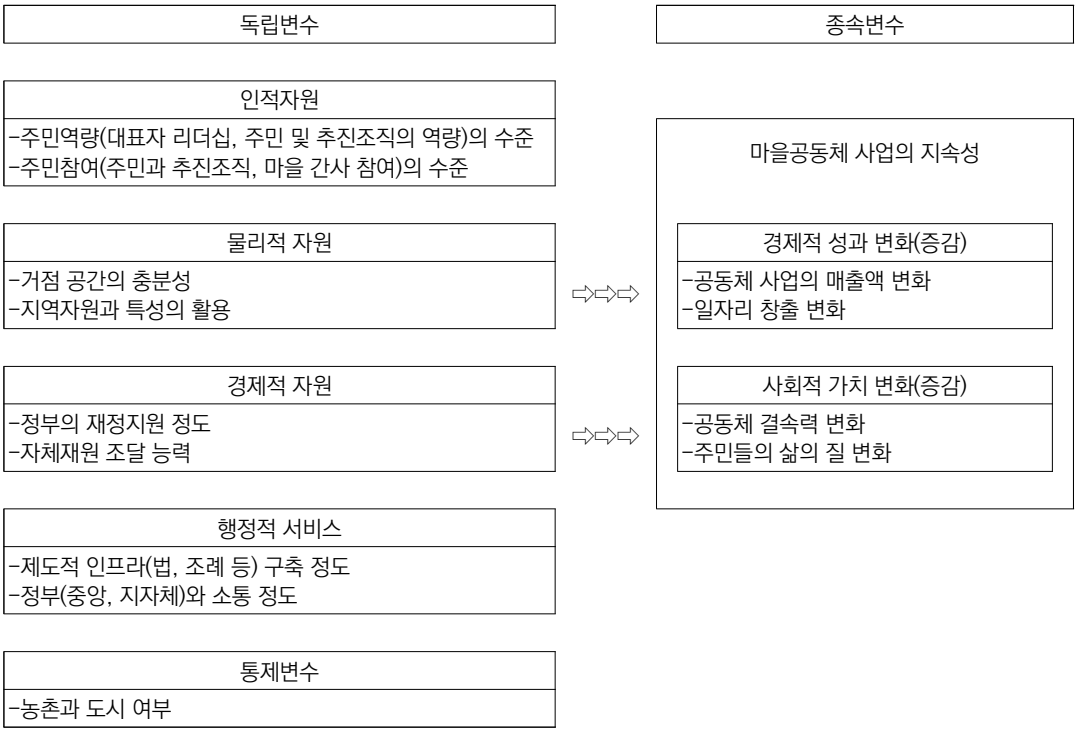
연구모델은 리질리언스 이론과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구성하는 지역사회의 구성체계를 설계하고 이 구성체계를 토대로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요인들을 변수로 도출하여 설계하였다. 리질리언스 시각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은 경제적 성과변화와 사회적 가치변화로 구분할 수 있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본질적인 가치인 공동체 의식과 지역정체성을 제고시키고 이러한 사회적 가치들을 제고시키는 기반이자 가시적 결과물이 될 수 있는 경제적 편익 창출을 동시에 구현하여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창출되는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가치의 변화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하현상 외, 2017). 경제적 성과의 변화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편익으로 일자리 창출, 마을공동체 사업의 매출액, 마을공동체 사업의 순이익, 지역경제 활성화의 변화 정도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의 변화는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얻게 되는 무형의 가치로서 주민들의 공동체 결속, 삶의 질, 지역정체성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사회의 구성체계는 앞에서 언급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종합해보면, 인적자원, 물리적 자원, 경제적 자원, 행정적 서비스의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존연구에 의하면,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한 인적자원은 참여하는 주민과 주민조직의 역량, 대표자의 리더십, 주민과 주민조직의 참여 등을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강조하고 있다(하현상 외, 2017; 김현호, 2013; 김수영 외, 2014; 이종수, 2018; Goodman et al., 1998; Chaskin, 2001). 물리적 자원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거점 공간과 지역자원과 특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이종수, 2015; 전대욱 외, 2012; 박인권, 2012; 하현상 외, 2017). 그리고 경제적 자원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운영을 위한 재정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재정지원과 마을공동체가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재원조달 능력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다(최진식, 2015; 박태정, 2014; 전지훈 외, 2018). 행정적 서비스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지원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도적 인프라 구축(법, 조례 등)이 얼마나 잘 갖추었는지의 정도와 정부 부처와의 소통 채널이 원활하게 구축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여관현 외, 2013; 김수영 외, 2014). 또한, 농촌과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들은 서로 다른 속성을 보이고 있다(하현상 외, 2017; 이기태 외, 2016). 일반적으로 지역의 특성과 물리적·인적 자원을 기반으로 하며 장기간 거주하는 농촌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주기간이 짧은 도시의 공동체 사업은 영향요인이 다른 경향이 있다(하현상 외,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유형을 농촌형과 도시형으로 구분하여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이상에서 설명한 연구모델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제시된 연구자들의 논리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구성체계인 인적자원, 물리적 자원, 경제적 자원, 행정적 서비스의 구성 변수들이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을 측정하는 척도로 사용

되는 구성 변수인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가치의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리질리언스 이론에 기반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의 구성체계에 속하는 세부요인들이 4Rs(내구성, 자원부존성, 가외성, 신속성)를 체계적으로 잘 갖추어서 시너지가 발생하게 되면 마을공동체 사업이 경제적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사회적 가치 또한 잘 창출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인적자원, 물리적 자원, 경제적 자원, 행정적 서비스가 높은 4Rs를 보유하여 높은 리질리언스를 가질수록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가치의 변화는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구체적인 가설은 연구가설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모델




## 2. 연구가설

### 1) 인적자원

(1) 주민의 역량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주민의 역량은 주민 개개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주민조직의 역량, 대표자의 리더십이 모두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주민의 역량은 주민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가는 능력,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능력, 사업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점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이수, 2015). 마을 공동체 사업을 위한 주민조직과 대표자의 역량이

높을수록 주민들 간의 갈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해도 신속하게 정상화시켜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내구성과 신속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주민들이 갈등을 긍정적·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결속력과 갈등 해결 능력이 더욱 강화되어서 사회적 가치의 성과가 더욱 증가할 것이다. 또한, 사업의 전반적인 여건을 전략적으로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필요한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 사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요인이 발생하였을 때, 구축된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을 동원하여 빠르게 대처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가외성을 높이고 자원부존성을 높여서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제적 성과를 보다 안정적으로 창출하도록 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주민역량이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H.1: 주민역량이 높을수록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은 높아질 것이다.
H.1_1: 주민역량이 높을수록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제적 성과는 긍정적 변화를 보일 것이다.
H.1_2: 주민역량이 높을수록 마을공동체 사업의 사회적 가치는 긍정적 변화를 보일 것이다.

(2) 주민참여

마을공동체의 사업운영에 있어 주민참여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사업을 주도하는 주민조직과 마을 간사의 참여뿐만 아니라 주민 개개인의 참여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다(최진식, 2015; 박병춘, 2012). 마을공동체 사업운영에 있어 지역 주민들이 활발하게 참여하면서 친밀감을 쌓을수록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소통과 신뢰, 그리고 협력이 높아지게 된다. 이것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각종 위험과 갈등요인이 발생했을 때 공동체 결속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할 뿐 아니라 학습을 통하여 주민들의 공동체 결속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지역정체성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하현상 외, 2017). 따라서 주민들은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고 수익 창출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한 지역사회의 가외성과 내구성, 자원부존성을 높여서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주민들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자원에 대한 정보 교환이 활발해지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 공유와 역할분담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최인수·전대욱, 2014). 이처럼 자원부존성과 신속성을 제고시키는 활동들이 활발해지면서 일자리를 더욱 많이 창출하고 반면에 운영비용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경제적 성과를 더욱 제고시키는데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민참여에 대한 이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H.2: 주민참여가 활발할수록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은 높아질 것이다.
H.2_1: 주민참여가 활발할수록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제적 성과는 긍정적 변화를 보일 것이다.
H.2_2: 주민참여가 활발할수록 마을공동체 사업의 사회적 가치는 긍정적 변화를 보일 것이다.

### 2) 물리적 자원

(1) 거점 공간들의 충분성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해서 충분한 거점 공간들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필수 조건이다 (김수영 외, 2014). 마을공동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사업발굴, 사업추진, 사업운영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집단적 의사결정과 교육, 전략 수립, 생산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한 물리적 공간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어야 하고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한상일·김경희, 2013; 박병춘, 2012). 한편, 일반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특징상, 사업 공간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면 보관 및 운반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다. 이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한 지역사회의 신속성과 자원부존성을 높여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경제적 성과를 보다 용이하게 창출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주민들은 거점 공간에서 다양하게 직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업전략을 수립하면서 보다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고 결속력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여관현, 2015; 박수진·나주몽, 2015). 따라서 거점 공간은 직·간접적으로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사업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견고한 관계망을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충분한 거점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면 지역사회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외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것은 더 강한 내구성을 갖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충분한 거점 공간은 공동체 결속, 지역 정체성 확보, 신뢰 강화와 같은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형성하는 데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거점 공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H.3: 거점 공간이 충분할수록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은 높아질 것이다.
H.3_1: 거점 공간이 충분할수록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제적 성과는 긍정적 변화를 보일 것이다.
H.3_2: 거점 공간이 충분할수록 마을공동체 사업의 사회적 가치는 긍정적 변화를 보일 것이다.

(2) 지역자원과 특성의 활용

마을공동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가장 효율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이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2; 최현선 외, 2012; 박병춘, 2012; 박인권, 2012; 이종수, 2015). 마을의 자원을 이용하는 것은 자원을 안정적으로 가장 쉽게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비용을 절감할 뿐 아니라 차별적인 지역경제를 만드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문화와 특성을 반영하는 것은 공통적 인식과 문화를 기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 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결속력과 참여를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처럼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와 적극성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조달할 수 있는 사업운영체계를 더 용이하게 갖추도록 해줄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수록 지역사회의 내구성과 자원부존성을 높여서 사업의 지속성을 더 잘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민들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물리적·인적 자원에 대하여 잘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들 자원과 특성을 더 잘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다(하현상 외, 2017). 이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한 지역사회의 신속성을 높이고 사업의 안전장치인 가외성을 동시에 높이는 중

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지역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다(전대욱 외, 2012; 최현선 외, 2012; 한상일 외, 2013). 이러한 시각에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수립하고자 한다.

H.4: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더 많이 반영할수록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은 높아질 것이다.
H.4_1: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더 많이 반영할수록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제적 성과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일 것이다.
H.4_2: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더 많이 반영할수록 마을공동체 사업의 사회적 가치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일 것이다.

### 3) 경제적 자원

(1) 정부의 재정지원

마을공동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재정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박태정, 2014; 하현상 외, 2017). 따라서 정부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마중물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배응환, 2003; 진재문, 2014; 최인수 외, 2014). 그러나 문제는 많은 마을공동체 사업이 자발적 계획 수립이나 재정조달 보다는 중앙정부의 공모 일정에 맞추어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이 중단될 때 재정적 어려움으로 마을공동체 사업도 중단되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많다(최인수 외, 2014). 정부의 재정지원이 원래의 취지대로 마중물로서 역할을 하고 주민들이 자발적 노력을 통하여 자체재원을 확보하는 능력을 키워서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 어떤 경우에는 자체재원은 투자하지 않고 공모사업들에만 의존하여 사업을 운영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최진식,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이 많을수록 다양한 필요 시설들을 갖추고 사업역량이 높아지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파악된다(하현상 외, 2017). 사업을 통한 경제적 성과가 낮아서 재원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정부의 재정지원이 다양하고 많으면 기반시설과 생산 및 사무 공간 등의 시설확보와 자원확보가 보다 용이하기 때문에 사업정착이 용이하고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여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매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민들의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해 사업과 관련된 교육과 기술훈련을 통하여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가외성과 자원부존성을 높여 긍정적인 경제적 성과변화를 도출해 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공동체 사업의 내구성을 동시에 제고시킬 것이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사업은 민간기업과 다르게 이익추구를 최우선적인 목표로 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의 이익과 공동체성을 동시에 중요하게 여기는 활동이기 때문에 정부재정지원 정도가 높으면 주민들은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부담을 덜 느끼며 공동체 활동과 신뢰 구축을 위한 활동들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재정지원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자원부존성과 내구성을 동시에 높여서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지원이 한시적으로 투자되었을 때는 다소 부정적일 수 있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재정지원이 증가할수록 긍정적 기능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H.5: 정부의 재정지원 정도가 높을수록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은 높아질 것이다.
H.5_1: 정부의 재정지원 정도가 높을수록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제적 성과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일 것이다.
H.5_2: 정부의 재정지원 정도가 높을수록 마을공동체 사업의 사회적 가치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일 것이다.

(2) 자체재원 조달 능력

마을공동체 사업의 자체재원 조달 능력은 마을공동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정적 역량의 정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이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재원은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민출자, 출향민 후원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이상엽·정건섭, 2011). 마을공동체 사업의 자체재원 조달 능력이 높아 재정적인 자립도가 높으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을 낭비하지 않고 마을공동체 사업 자체에 더 집중할 수 있으며, 정부의 재정지원이 중단될 경우에도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자체재원 조달 능력이 높으면 주민들의 참여가 더욱 적극적이고 주민들의 권한이 높아져 마을의 특징을 잘 반영한 사업으로 운영할 것이다. 따라서 마을공동체 사업의 자체재정 조달 능력이 높으면 마을주민들의 참여와 의사결정 권한, 책임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위해 요인으로 인한 충격이 발생하였을 때, 책임감이 높아진 주민들은 적극적이며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동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자체재원 조달 능력이 좋을수록 참여자들은 더 높은 결속력을 형성하면서 신속하게 대응하려고 하며 수익 창출을 위해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한 지역사회의 내구성과 신속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자체재원 조달 능력은 마을주민들 사이의 네트워크와 협력을 강화시켜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보 공유, 물질적·재정적 자원분담 등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사회의 자원부존성과 가외성을 높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들 간의 공동체 결속력과 지역정체성이 더욱 높아지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마을의 재원이 사업에 투자되기 때문에 책임감이 높아져 사업운영에 있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경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려는 행위를 더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체재원 조달 능력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H.6: 자체재원 조달 능력이 높을수록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은 높아질 것이다.
H.6_1: 자체재원 조달 능력이 높을수록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제적 성과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일 것이다.
H.6_2: 자체재원 조달 능력이 높을수록 마을공동체 사업의 사회적 성과변화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일 것이다.

### 4) 행정적 서비스

(1) 제도적 인프라(법, 조례) 구축

제도적 인프라는 조직이나 사업의 성과 창출에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North, 1990; Ostrom et al, 1993). 마을공동체 사업에서도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가 법이나 조례를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제도적 인프라가 중요한 요인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상현, 2014; 여관현 외, 2013). 이러한 조례와 제도를 통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제적,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예산과 인력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제도적 인프라는 마을공동체 사업 구성체계의 가외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경기침체나 사회적 혼란으로 인하여 지속적 운영이 위협받을 경우에도 행정적·법적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다면 안정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인적, 물리적, 재정적인 자원들을 신속하고 풍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는 지역사회의 내구성과 자원부존성을 높이는 데에도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주민들은 제도적 지원을 받으면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일자리 창출과 매출액, 순이익을 안정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그리고 마을 규약이나 조례를 통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주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갈등과 위협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제도적 인프라에 대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H.7: 제도적 인프라의 구축이 잘 되어 있을수록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은 높아질 것이다.
H.7_1: 제도적 인프라의 구축이 잘 되어 있을수록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제적 성과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일 것이다.
H.7_2: 제도적 인프라의 구축이 잘 되어 있을수록 마을공동체 사업의 사회적 가치가 긍정적인 변화를 보일 것이다.

(2) 정부와 소통

마을공동체 사업들은 지역 주민들의 주도로 추진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김수영 외, 2014; 전대욱 외, 2012; 최진식, 2015). 주민들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 및 운영하기 위해서 정부의 재정 및 정책적 지원을 받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담당 부서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하게 된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2; 김현호, 2013). 이러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부존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대표나 주민들은 정부 담당자들과 활발한 소통을 통하여 필요한 자원, 교육기회 등에 대한 정보를 얻고, 더 많은 지원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정부 부처와의 원활한 소통은 사업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여 정부 재정지원, 교육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기회가 증가할 것이다. 마을공동체 사업이 위기상황이나 경기침체에 직면할 경우에도, 활발한 소통을 통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다 신속하게 유용한 정보와 재정적·물리적 지원을 얻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처럼 정부부처와의 소통은 재정지원, 교육지원을 받을 더 많은 정보와 기회를 얻게 된다. 따라서 주민들이 사업에 더 활발하게 참여하게 되면서 주민 간 상호작용이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상호 간 협력의 기회가 증대되며 주민 간 신뢰가 높아지며 더 많은 참여 의지를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사회의 가외성과 자원부존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게 기여하고 이것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내구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해야 할 운영 및 생산활동의 증가로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 창출의 기회와 가능성도 더 커질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부부처와의 소통에 대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H.8: 정부부처와의 소통이 원활할수록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은 높아질 것이다.
H.8_1: 정부부처와의 소통이 원활할수록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제적 성과는 긍정적 변화를 보일 것이다.
H.8_2: 정부부처와의 소통이 원활할수록 마을공동체 사업의 사회적 가치는 긍정적 변화를 보일 것이다.

# Ⅳ. 데이터 수집 및 변수 설명

## 1.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리질리언스 시각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된 마을공동체 사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E-mail과 직접 방문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전국의 총 218개의 마을공동체 사업으로부터 설문을 수집하였다.[6] 설문 대상자는 설문 데이터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사업을 가장 구체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고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운영 담당자들과 객관적인 입장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각 설문항을 구성할 때 응답자의 주관적 인지에 의존하지만 여러개의 설문항으로 구성하거나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에 대한 질문을 물어서 의도적인 편향적 답변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여러개의 설문항을 활용하는 변수는 요인분석을 통하여 설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후, 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절차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운영하는 4개 영역에 해당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체계가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들 사이의 다중공선성(multicollunirity)을 확인하기 위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와 VIF를 확인한 결과, 모든 모델에서 2.0 이하로 측정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상관관계 분석결과 '제도적 인프라'와 '정부와 소통' 간의 상관관계가 0.515로 가장 높았으며 나머지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0.5 이하를 보였다. 그리고 잔차의 정규성(normality of residuals)과 잔차의 등분산성(homoscedasticity of residuals)도 그래프에 의해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특정 패턴을 보이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체재원 조달 능력'과 '제도적 인프라 구축' 변수는 정규분포를 이루지 못하고 편향성을 보여서 각각 로그(log)와 제곱근(square root)를 취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검정한 후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6) 먼저 2년 이상 지속된 마을공동체 사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지를 이메일로 보내서 일부 응답을 받았지만 대부분 응답이 없어서 2년 이상 지속된 마을공동체 사업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박람회, 교육장 등을 방문하여 설문응답을 받았다.

## 2. 변수 설명

먼저 종속변수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을 두 영역으로 구분하여 경제적 성과변화, 사회적 가치변화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은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가치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모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일 때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경제적 성과변화와 사회적 가치변화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합한 종속변수를 설정하여 지속성을 동시에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변수를 살펴보면, 경제적 성과변화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편익의 변화에 대한 것으로, 지난 2년간의 '일자리 창출', '마을공동체 사업의 매출액'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7점 척도로 확인하고 두 설문항의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 사회적 가치변화는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얻게 되는 무형의 성과로써 지난 2년 간의 주민들의 '공동체 결속'과 '주민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7점 척도로 확인하여서 평균값을 측정하여 활용하였다. 이들 종속변수에 관련된 설문항의 척도는 '매우 낮아졌음(1)'부터 '매우 높아졌음(7)'으로 구성하여 7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경제적 성과변화 요인과 사회적 가치변화와 관련된 요인들 전체 평균값을 사용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을 통합적으로 측정하여 영향요인을 동시에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는 리질리언스 관련 선행연구들에 대한 문헌검토를 통해 마을공동체 사업의 구성체계를 설계하여 인적자원, 물리적 자원, 경제적 자원, 행정적 서비스로 구분하였다. 인적자원은 주민의 역량, 추진조직의 역량, 대표자의 리더십에 대한 설문항의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값(factor score)를 구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주민참여의 수준은 주민 개개인의 참여, 추진조직의 참여, 마을 간사의 참여를 요인분석으로 요인 값(factor score)을 확인하여 변숫값으로 활용하였다. 이들 인적자원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로 측정한 타당도와 신뢰도 검정결과에 따르면, Kaiser-Meyer-Olkin(KMO)는 0.756, Cronbach-$\alpha$는 0.785로 별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적 자원은 정부의 재정지원 정도와 마을공동체 사업의 자체재원 조달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물어서 측정하였고, 물리적 자원은 거점 공간들의 충분성과 해당 지역의 특성과 자원의 반영 정도를 확인하여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인프라(법, 제도 등)의 구축 정도와 정부 부처와의 원활한 소통 정도를 확인하여 행정 서비스에 대한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이상에서 언급한 모든 문항의 척도는 7점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낮음(1)부터 매우 높음(7)으로 값을 측정하였다. 한편, 기존연구에 따르면, 도시와 농촌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이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과 여건 속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도시지역과 농촌 지역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이기태 외, 2016; 이종수, 2015; 하현상 외, 2017). 따라서 도시형과 농촌형을 각각 '0'과 '1'로 코딩하여 더미 변수로 설정하여 통제하였다. 변수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변수의 구성

| 종속변수 | 측정 | | |
|---|---|---|---|
|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제적 성과의 변화 | 지난 2년간의 '일자리 창출', '마을공동체 사업의 매출액' 변화의 평균값(각 7점 척도) | | |
| 마을공동체 사업의 사회적 가치의 변화 | 지난 2년 간의 주민들의 '공동체 결속'과 '주민들의 삶의 질' 변화의 평균값(각 7점 척도) | | |
|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 | 지난 2년간의 '일자리 창출', '마을공동체 사업의 매출액', '주민들의 공동체 결속', '주민들의 삶의 질' 변화의 평균값(각 7점 척도) | | |
| 독립변수 | 측정 | | |
| 주민의 역량 | 대표자의 리더십 | 0.769 | |
| | 주민의 역량 | 0.846 | |
| | 추진조직의 역량 | 0.873 | |
| 주민참여 | 주민 개개인의 참여 | | 0.701 |
| | 추진조직의 참여 | | 0.851 |
| | 마을간 사(이장, 통장, 마을부녀회장의 참여)이 참여 | | 0.728 |
| 신뢰도(Cronbach의 알파) | 0.785 | | |
|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 0.756 | | |
| 거점 공간들의 충분성 | 각 7점 척도 | | |
| 지역자원과 특성의 활용 | | | |
| 정부의 재정지원 | | | |
| 자체재원 조달 능력 | | | |
| 제도적 인프라(법, 조례 등)의 구축 | | | |
| 정부(중앙부처, 시군구)와 소통 | | | |
| 통제변수 | 측정 | | |
| 마을공동체 사업의 유형 | 도시형: 0, 농촌형: 1 | | |

# V. 분석결과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술통계분석은 〈표 4〉의 분석결과에서 활용된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경제적 성과변화의 모델, 사회적 가치변화의 모델, 이들을 통합한 지속성 모델의 각각에서 활용한 데이터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제적 성과의 변화와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 모델에 활용된 데이터는 144개이며 마을공동체 사업의 사회적 가치변화모델에 사용한 데이터는 147개 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 모델 모두에서 종속변수의 평균은 중앙값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표준편차는 각각 1.52, 1.30, 1.24로서 경제적 성과의 모델에서 가장 표준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 독립변수들을 살펴보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값(factor score)을 활용한 인적역량의 주민역량 변수와 주민참여 변수에서 각 모델의 주민참여와 주민역량 변수 간의 차이는 존재

하지만 각 변수에서는 표준편차를 제외한 평균, 최대값과 최소값이 세 모델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물리적 자원의 변수들을 보면, 거점공간들의 충분성에서는 사회적 가치 변화의 모델이 다른 두 모델에 비하여 미미하지만 더 큰 표준편차와 평균을 보였으며 지역자원과 특성의 활용에서는 표준편차, 평균, 최대 및 최소값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거점공간들의 충분성의 표준편차가 다른 변수들의 표준편차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제적 자원의 변수들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원과 자체재원 조달능력의 두 변수 모두에서 사회적 가치의 변화 모델이 상대적으로 다른 모델들에 비하여 높은 평균을 보였다. 특히, 정부의 재정지원 표준편차가 모든 변수에서 1.65로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행정적 서비스에서는 사회적 가치 모델의 변수인 정부와의 소통의 평균이 다른 모델의 평균에 비하여 미미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도적 인프라의 구축변수의 표준편차가 다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기술통계분석**

| 구분 | 변수 |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제적 성과의 변화 모델(N=144) | | | | 마을공동체 사업의 사회적 가치의 변화 모델(N=147) | | | |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 모델(N=144) | | | |
|---|---|---|---|---|---|---|---|---|---|---|---|---|---|
| | | Mean | Std. Dev. | Min | Max | Mean | Std. Dev. | Min | Max | Mean | Std. Dev. | Min | Max |
| 종속변수 | 경제적 성과변화 | 3.59 | 1.52 | 1 | 7 | | | | | | | | |
| | 사회적 가치변화 | | | | | 4.27 | 1.30 | 1 | 7 | | | | |
| | 지속성 | | | | | | | | | 3.94 | 1.24 | 1 | 7 |
| 인적자원 | 주민의 역량 (factor score) | −0.02 | 1.00 | −2.41 | 3.07 | −0.02 | 1.01 | −2.41 | 3.07 | −0.02 | 1.00 | −2.41 | 3.07 |
| | 주민 참여 (factor score) | 0.02 | 0.98 | −2.95 | 2.41 | 0.02 | 0.99 | −2.95 | 2.41 | 0.02 | 0.98 | −2.95 | 2.41 |
| 물리적자원 | 거점 공간들의 충분성 | 3.40 | 1.59 | 1 | 7 | 3.41 | 1.60 | 1 | 7 | 3.40 | 1.59 | 1 | 7 |
| | 지역자원과 특성의 활용 | 4.10 | 1.38 | 1 | 7 | 4.10 | 1.38 | 1 | 7 | 4.10 | 1.38 | 1 | 7 |
| 경제적자원 | 정부의 재정지원 | 3.86 | 1.65 | 1 | 7 | 3.88 | 1.65 | 1 | 7 | 3.86 | 1.65 | 1 | 7 |
| | 자체재원 조달 능력(log) | 0.98 | 0.60 | 0 | 1.95 | 0.99 | 0.59 | 0 | 1.95 | 0.98 | 0.60 | 0 | 1.95 |
| 행정적서비스 | 제도적 인프라(법, 조례 등)의 구축(sqrt) | 1.78 | 0.38 | 1 | 2.65 | 1.78 | 0.38 | 1 | 2.65 | 1.78 | 0.38 | 1 | 2.65 |
| | 정부(중앙부처, 자치단체)와 소통 | 3.50 | 1.42 | 1 | 7 | 3.51 | 1.42 | 1 | 7 | 3.50 | 1.42 | 1 | 7 |
| 통제변수 | 마을공동체 사업의 유형(도시형, 농촌형) | 0.42 | 0.50 | 0 | 1 | 0.41 | 0.49 | 0 | 1 | 0.42 | 0.50 | 0 | 1 |

〈표 4〉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제적 성과변화(모델 1), 마을공동체 사업의 사회적 가치변화(모델 2),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모델 3)의 3가지 모델에서 F(prob〉F) 값을 보면,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모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사업의 구성체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도 모델 1(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제적 성과변화)에서 13.7%로 다소 낮았지만, 모델 2(마을공동체 사업의 사회적 가치변화)와 모델 3(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은 각

각 28.5%와 22.7%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표본은 218개의 설문지를 받았지만, 결측값이 존재하여 144 ~ 147개의 표본이 연구에 사용되었다.

모델 1(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제적 성과변화)의 분석결과를 먼저 살펴보면, 물리적 자원의 '지역자원과 특성의 활용'과 경제적 자원의 '자체재원 조달 능력'이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제적 성과의 긍정적 변화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체재원 조달 능력의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운영을 위한 자체재원 조달 능력이 높을수록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을 낭비하지 않고 마을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정부의 재정지원이 중단되는 위협에 직면하였을 때 높은 자체재원 조달 능력으로 자원부존성과 가외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참여자들의 내적인 동기부여 측면에서 자체재원을 활용한 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협력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신속성과 자원부존성이 높아져 이러한 경제적 성과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박태정, 2014; 하현상 외, 2017). 이 결과는 자체재원 조달 능력이 실제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제적 성과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지역자원과 특성의 활용도 경제적 성과의 긍정적 변화에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지역의 자연자원, 물리적 환경, 문화재, 마을의 특성 등은 공동체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될 뿐 아니라 안정적인 자원조달로 인해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차별적인 지역경제를 만들어 내구성과 자원부존성이 구축되어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과 지속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 결과는 지역자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제적 성과변화에 대하여 인적자원의 주민의 역량과 참여, 물리적 자원의 거점공간들의 충분성, 경제적 자원의 정부재정지원, 행정서비스의 제도적 인프라 구축과 정부와 소통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제적 성과에 대하여 이들 변수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들 요인은 경제적 성과의 지속성보다 정착 이전단계의 마중물 역할을 하거나 형성 및 발전단계에서 주로 매몰비용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민들의 참여와 역량, 거점공간, 정부재정지원, 정부와 소통, 제도적 지원 등은 대부분 상대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형성하고 활성화시키는 초기단계에서 매몰비용이거나 초기의 제도구축 시에 체감도가 높고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착된 이후 단계에서는 다소 중요성이 낮게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적자원의 경우, 마을공동체 사업이 지속성을 확보한다면 적어도 사업이 정착단계에 진입한 경우이기 때문에 높은 주민참여율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민의 참여와 역량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이 요인들의 중요성이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한 결론일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자체재원 조달과 공동체 사업을 위한 물리적 자원은 정착단계 이후에도 경제적 성과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 변수가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모델 2(마을공동체 사업의 사회적 가치변화)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마을공동체 사업의 구성체계에서 특히, 인적자원의 변수가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민의 역량과 '주민참여' 가 모두 마을공동체 사업의 사회적 가치변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물리적 자원의 '지역자원과 특성의 활용' 변수도 경제적 성과에서와 마찬가지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운영과정에서 주민들의 역량이 높으면 사업을 계획성 있게 수립하며,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높은 내구성과 신속성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민들의 참여가 보다 적극적일수록 서로의 신뢰와 협력이 강해지고 그로인해 갈등으로 인한 공동체 해체를 예방할 수 있는 내구성과 가외성이 높아지며, 역할수행 과정에서 학습을 통하여 더 높은 자원부존성과 신속성을 갖추기 때문에 공동체 결속력이 강해지고 삶의 질도 높아진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마을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참여와 역량이 중요한 요소이다(하현상 외, 2017). 한편,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한 유용한 지역자원과 특성은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역량을 발휘하는 중요한 여건을 제공해줄 수 있다. 주민들은 마을의 자원이 성공적인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해서 매우 가치 있다고 인식하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역량을 발휘하려는 적극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지역사회의 자원에 대하여 잘 알기 때문에 높은 신속성과 자원부존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지역자원과 특성, 주민들의 참여와 역량이 마을공동체 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인적자원의 핵심인 주민의 참여와 역량이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이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가치의 지속적인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인적자원의 리질리언스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전대욱 외, 2012; 최현선 외, 2012; 하현상 외, 2017). 따라서 주민들의 역량과 참여 의지뿐만 아니라 자원 활용을 위한 교육과 노력이 마을공동체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후속연구에서는 이들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과 관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물리적 자원의 거점공간들의 충분성, 경제적 자원의 정부재정지원과 자체재원 조달 능력, 행정적 서비스의 제도적 인프라 구축과 정부와 소통 변수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 결속력과 신뢰는 사람과 사람들 간의 유대감과 관계망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자원과 행정서비스, 공간 등의 영향이 다소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인적자원은 마을공동체의 관계망을 만들어가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지역자원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가치의 변화와 경제적 성과의 변화 변수들을 모두 통합한 모델 3(마을공동체 사업의 지

속성)에서도 경제적 성과의 변화와 사회적 가치의 변화에서 각각 보여주었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지역자원과 특성의 활용' 변수는 경제적 성과의 변화와 사회적 가치의 변화 모델에서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들을 통합한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 모델에서도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과 특성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주민들이 잘 알고 있는 지역의 특수한 자원을 활용하면 주민들은 익숙한 자원이기 때문에 마을공동체 사업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자원부존성과 내구성을 갖게 된다. 그리고 더욱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며,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기반으로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하현상 외, 2017). 한편, 사회적 가치에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인적자원이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 모델에서도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주민들의 참여와 역량이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운영적 한계와 갈등을 극복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의 내구성과 신속성을 강화시키고, 정보수집 및 재원확보 능력의 강화로 자원부존성을 동시에 제고시켜서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재정여건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연구는 확인시켜주고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은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마을공동체 사업이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주민조직들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서 마을공동체 사업의 내구성과 자원부존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주목할 점은 행정적 서비스의 모든 변수들이 세 모델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로 마을공동체 사업의 현장을 살펴보면 사업허가규제, 지원조례의 부재, 정부 부처와의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일부 사업들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기도 하며, 주민들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기도 한다(하현상 외, 2017). 하지만 분석결과처럼 법, 조례, 규제, 규약 등의 제도적 인프라와 정부 부처와의 원활한 소통의 정도가 마을공동체 사업의 사회적, 경제적인 성과의 변화를 높이거나 감소시키는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한 행정적 서비스가 여전히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운영하는 많은 활동가들과 주민들은 행정적 서비스가 현장의 여건과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한다. 따라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보다 현장 지향적이고 맞춤형 서비스가 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4〉 분석결과

| 마을 공동체 사업의 구성체계 | 독립변수 | 모델1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제적 성과변화) | 모델2 (마을공동체 사업의 사회적 가치변화) | 모델3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 |
|---|---|---|---|---|
| | | Coef. (Std. Err.) | Coef. (Std. Err.) | Coef. (Std. Err.) |
| 인적 자원 | 주민의 역량(factor score) | 0.194 (0.147) | 0.305*** (0.113) | 0.248** (0.113) |
| | 주민 참여(factor score) | 0.072 (0.151) | 0.243** (0.116) | 0.157** (0.117) |
| 물리적 자원 | 거점 공간들의 충분성 | -0.139 (0.099) | 0.077 (0.076) | -0.032 (0.076 |
| | 지역자원과 특성의 활용 | 0.212** (0.105) | 0.164** (0.080) | 0.193** (0.080) |
| 경제적 자원 | 정부 재정지원 | -0.003 (0.080) | 0.074 (0.061) | 0.030 (0.062) |
| | 자체재원 조달 능력(log) | 0.648*** (0.226) | 0.111 (0.175) | 0.384** (0.174) |
| 행정적 서비스 | 제도적 인프라 구축(sqrt) | -0.088 (0.409) | 0.087 (0.315) | 0.020 (0.316) |
| | 정부(중앙정부, 자치단체)와 소통 | 0.069 (0.104) | -0.013 (0.080) | 0.022 (0.081) |
| 통제 변수 | 마을공동체 사업유형 (도시/농촌형) | 0.663** (0.023) | 0.099 (0.196) | 0.371* (0.197) |
| _cons | | 2.204 (0.668) | 2.204 (0.667) | 2.49 (0.515) |
| N of Obs. | | 144 | 147 | 144 |
| F(prob>F) | | F(9, 134) = 3.52*** | F(9, 137) = 7.47** | F(9, 134) = 5.67*** |
| VIF | | 1.48 | 1.50 | 1.48 |
| Adj R-squared | | 0.137 | 0.285 | 0.227 |

주: *** p<0.01, ** p<0.05, * p<0.1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물리적 자원의 지역자원과 특성의 활용 변수가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가치의 변화, 이들을 통합한 지속성에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대부분 지역의 물리적·인적 자원을 활용하는데, 이러한 지역의 자원이나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접근방식이 마을공동체 사업의 리질리언스를 높여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경제적 성과변화와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 모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제적 성과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는 경제적 자원에 해당되는 자체재원의 조달 능력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이 연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운영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중요한데 정부의 재정지원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

할 수 있어야 한다. 자체적 재원조달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재원을 직접 출자하거나 조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량을 제고시키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자체재원 조달능력이 좋을수록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한 지역사회의 신속성, 자원부존성, 가외성이 높아지고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사회적 가치의 변화와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 모델에서도 주민들의 참여와 역량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모델에서는 인적자원에 해당되는 주민의 역량과 주민참여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이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활동의 주체인 주민들의 참여와 역량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며 그로인해 마을공동체 사업의 리질리언스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연구로부터 우리는 공동체 결속력과 같은 사회적 가치 변수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에는 인적자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적 시각에서 바라보면,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사업을 통해 얻는 사회적·경제적 편익에 따라 더 핵심적인 영향요인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리질리언스의 어떤 특성이 미흡한지를 미시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한 지역사회의 생태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을 획일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보다 섬세하게 영향요인들을 확인하고 반영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리질리언스의 구성체계와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Ⅵ. 결론 및 함의

이 연구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업이 추진되면서 사업의 활성화와 성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지만, 특정 사례를 분석한 연구가 대다수이며 특히 최근 중요하게 여겨지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떤 요인들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경험적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시작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사회 리질리언스 시각(community resilience perspective)을 적용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의 구성체계가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체계적인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한 지역사회의 구성요소를 인적자원, 경제적 자원, 물리적 자원, 행정적 서비스로 구분하여 설계하였다. 이렇게 설계된 마을공동체 사업의 구성체계를 토대로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영향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모델을 설계하였으며, 2년 이상 운영된 전국 마을공동체 사업만을 대상으로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가치의 변화를 설문 조사하였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경험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구성체계의 세부 변수들이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제적 성과변화, 사회적 가치변화, 그리고 이들을 통합한 지속성 모델에서 뚜렷한 특징을 발굴할 수 있었다. 세 모델 모두에서 물리적 자원에 해당되는 지역자원과 특성의 활용이 통계학적으로 유

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리질리언스를 높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원과 특징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역자원과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많은 마을공동체 사업이 지역사회의 인적·물리적 자원을 활용하지만,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전략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경제적 성과가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기 위해서는 지역자원 및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자체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경제적 성과는 소득 및 일자리 창출과 같이 재정적 투자가 필요한 소득창출형 사업들이기 때문에 재정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는데 정부에만 의존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필요시에 부족한 재원을 채우고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을 때 마을공동체 사업은 높은 자원부존성과 가외성을 기반으로 위기가 발생해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강한 내구성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조직과 참여자들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투자하는 능력과 적극성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적 가치의 지속적인 긍정적 변화에는 인적자원에 해당되는 주민의 역량과 주민참여가 모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동체 결속력, 지역정체성, 삶의 질과 같은 사회적 가치의 지속적인 긍정적 변화는 물질적인 여건도 중요하지만 참여하는 사람의 역량과 참여가 실질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요인들의 구축이 잘 되어 있을 때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한 리질리언스가 높아지며 마을공동체 사업이 지속 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한 행정적 서비스가 여전히 현장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이 있다는 점도 정책결정자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해서 행정서비스의 지원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초기와 발전단계에서 특히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지속적으로 사업운영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못한 것은 미흡한 행정서비스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자치단체들과 마을 단위에서 다양한 조례와 규약을 만들고 있지만,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적 서비스의 구축이 더욱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자치단체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지만, 현장과의 괴리를 활동가들이나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는 점도 정책결정자들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전국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사회 리질리언스 시각을 도입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을 시도하지만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로 본 연구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제적 성과변화와 사회적 가치변화의 측정은 해당 마을공동체 사업의 2년간의 변화를 인식조사를 통해 측정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계량적 데이터가 아닌 인식조사에 기반한 데이터를 활용한 점에서 한계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여전히 마을공동체 연구에서 사업단위의 계량적 데이터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계량적 자료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불가피하게 설문조사를 통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마을공동체 연구가 더욱

설득력 있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 및 사업 단위의 계량적 자료를 위한 아카이브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공간적으로 전국의 마을공동체 사업들을 포괄하여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고 리질리언스 이론을 토대로 보다 체계적이고 보편적인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한 모형을 적용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결과의 통계적 설명력이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영향요인을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낮은 경향이 있다. 이 연구의 이러한 한계점들은 후속연구들에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강기호·이진희(2015). 주민참여와 농촌 마을만들기 사업성과의 관계에서 거버넌스의 매개효과 실증분석: 제주 웃뜨르권역 사례를 중심으로.「농촌계획」, 21(1): 103-115.

김광선(2011). 지역사회 주도 사회적 기업의 실태와 과제. 지역발전위원회·지식경제부 공동 주최「2011 지역발전 컨퍼런스」자료집.

김수영·오찬옥·문경주·류지선(2014). 마을공동체 형성의 인과구조 분석.「한국지역사회복지학」, 49: 337-381.

김이수(2015). 정보화마을공동체 활성화의 결정요인에 관한 설명적 연구: 전라북도 정보화마을주민들의 인식도를 중심으로.「지방정부연구」, 19(1): 201-227.

김정태(2014). 농촌지역개발 민간컨설팅회사의 실태와 개선방안.「농촌지도와 개발」, 21(2): 1-28.

김찬동(2012). 마을공동체 복원을 통한 주민자치 실현방안. 서울연구원 연구보고서.

김학실(2014). 지역공동체 위기에 대한 공동체주도발전전략(Community-Driven Development)에 관한 연구. Crisisonomy, 10(5): 179-201.

김현호(2013).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문종화(2012). 마을만들기 사례분석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과 일본사례를 중심으로.「지역사회개발연구」, 37(1): 21-31.

박미규·조진희·윤두원·황희연(2015). 커뮤니티시설의 이용만족도가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관계분석.「주거환경」, 13(3): 149-164.

박병춘(2012). 지역공동체 성공요인 및 정책적 시사점 -지역공동체 사례연구를 중심으로-.「지역사회연구」, 20(4): 1-26.

박수진·나주몽(2015). 마을만들기 사업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매개효과 분석을 중심으로-.「도시행정학보」, 28(4): 31-51.

박종관(2012). 지역공동체 형성전략연구: 천안시를 중심으로.「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7): 183-193.

박태정(2014). 마을공동체사업의 프로그램논리모형에 대한 연구: 서울특별시 강북구를 중심으로.「인문사회과학연구」. 15(3): 31-55.

배응환(2003). 지역공동체의 지방거버넌스모형 -충남의 지방정책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2(3): 59-92.

배진영(2010). 한국의 사회적 기업의 실체와 평가. 자유기업원 CFE Report, No,130.
성희자·전보경(2006). 농촌 지역 주민의 공동체 의식에 관한 연구.「사회복지정책」, 27: 149-170.
성희자·이강형(2013). 농촌지역 주민의 사회참여와 공동체 의식이 배타성에 미치는 영향.「사회과학연구」, 24(4): 315-332.
송인하(2010). 마을공동체운동의 성공조건과 과제.「지방자치연구」. 14: 33-64.
신중진·정지혜(2012).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만들기의 역할과 과제 - 수원화성과 행궁동 사람들의 도전을 중심으로.「정신문화연구」, 36(4): 59-96.
양덕순·강영순(2008). 지역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분석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1): 71-89.
원준혁·김흥순(2012).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 사업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한국도시설계학회」, 13(6): 55-68.
여관현(2013). 마을 만들기를 통한 공동체 성장과정 연구: 성북구 장수마을 사례를 중심으로.「도시행정학보」. 26(1): 53-87.
여관현·계기석(2013). 지방자치단체 마을만들기 조례의 제정 방향 연구.「도시행정학보」, 26(4): 241-270.
여관현(2014). 마을만들기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도시행정학보」, 27(4): 161-188.
여관현(2015). 주민학습과 실천을 통한 마을만들기의 지속가능성 연구: 성북구 장수마을 사례를 중심으로.「지방정부연구」, 19(3): 29-51.
여관현(2017). 마을만들기의 추진단계별 로컬거버넌스 형성에 관한 연구: 성북구 장수마을 사례를 중심으로.「지방정부연구」, 21(1): 395-422.
염돈민(2010). 지역공동체 사업(CB) 및 사회적기업 육성 전략. 강원발전연구원, 정책 Brief, 제81호.
유정규(2011). 지역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발전과제. 2011 한국지역사회학회춘계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26-45.
이기태·하현상(2016).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거래비용이론 관점에서.「한국정책학회」, 25(1): 455-491.
이상엽·정건섭(2011). 커뮤니티 비즈니스(자립형 지역공동체)의 발전방향 연구 -일본 제도와의 비교론적 접근을 중심으로-.「한국비교정부학보」, 15(2):221-252.
이석현·채진해(2013). 참여주체에 따른 마을만들기 성과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9(9): 187-194.
이수연(2013). 협력적 거버넌스의 관전에서 본 커뮤니티 비즈니스 정책과정에 관한 연구 -전북 완주군 사례를 중심으로-.「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2):149-168.
이왕기·정승현(2014). 고령사회에 대응한 마을만들기 전략.「도시설계: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5(1): 137-150.
이인숙(2015). 지역사회 주민참여 결정요인과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마을만들기' 참여지역 주민을 중심으로.「한국사회복지학「, 67(2): 237-257.
이재열(2006). 도시와 농촌의 지역공동체 복원: 이론과 현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편). 지역사회공동체에 대한 성찰과 재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사회학회 기획학술심포지엄.
이재완(2014).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주민참여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지방정부연구」, 17(4):

409-437.
이종수(2015). 공동체: 유토피아에서 마을만들기까지. 박영사: 서울.
이종수(2018). 공동체의 형성이 주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한국지방자치학회보」, 30(2): 201-219.
전대욱·박승규·최인수(2012).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전략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전대욱·최인수(2013). 회복가능한 지역공동체 및 안전거버넌스 조성에 관한 연구 - 4대악 근절 등 안전분야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중심으로.「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2): 49-71.
전지훈·최문형·정문기(2014). 공동체 활동과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연구: 코인스트리트, 나가하마, 삼덕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2014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503-534.
전지훈·홍은일(2018).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책수요와 경제적 성과의 영향관계 분석-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기업을 대상으로.「한국지방자치학회보」, 30(4): 223-250.
주상현(2014).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비즈니스 형성요인과 정책과제 - 완주군 CB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8(3): 219-249.
진재문(2014). 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한 자치단체의 주민참여 활성화 노력과 삶의 질의 관계 – 주민의 인식을 중심으로.「비판사회정책」, 45: 340-372.
최병두(2000). 공동체 이론의 전개과정과 도시 공동체 운동. 한국도시연구소,「도시연구」, 6.
최승호(2009). 지역 마을 공동체 만들기 운동의 발전 방안 모색 : 충남 홍성군 홍동 풀무마을을 중심으로.「한독사회과학논총」, 19(1): 237-268
최인수·전대욱(2014).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선진형 행·재정적 지원체계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진식(2015). 마을공동체 사업의 핵심적 성공요인. 공동체발전 국민포럼·한국정책학회 기획세미나 발표자료집.
최현선·이현주·이은지(2012). 커뮤니티 개발에 기반한 도시재생정책: 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현대사회와 행정」, 22(3): 225-275.
최희영·이희정(2014). 주민참여 마을만들기에서 여성의 참여와 역할에 관한 연구.「국토계획」, 49(6): 159-175.
하현상·김종범·조경호·이석환·최진식·전대욱(2014). 지역사회 재난 리질리언스(Community Disaster Resilience) 연구의 비판적 고찰과 행정학적 제언.「지역발전연구」, 23(2): 409-464.
하현상·이석환(2016). 지역사회 리질리언스 제고를 위한 공공마케팅에 대한 탐색적 고찰과 행정학적 제언.「한국자치행정학보」, 30(2): 101-137.
하현상·이기태(2017). 마을공동체 성과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중앙정부지원 사업을 중심으로.「한국행정학보」, 51(2): 421-459.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2).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전략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4). 선진형 지역공동체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보고서.
한상일·김경희(2013). 한국 사회적 기업의 지역자산 활용: 자산기반지역공동체발전 관점에서의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 모색.「지방행정연구」, 27(3): 153-180.

Aigner, S., Flora, C. & Hernandez, J.(1999). The Premise and Promise of Citizenship and Civil

Society for Renewing Democracies and Empowering Sustainable Communities. Sociological Inquiry, 71(4): 493-507.

Chaskin. R, J.(2001). Building Community Capacity: A Definitional Framework and Case Studies from a Comprehensive Community Initiatives. Urban Affairs Review, 36(3): 291-323.

Dale, A., & Lenore Newman.(2008). Social capital: a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for sustainable community development?.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45(1): 5-21.

Dale, A.(2013). Agency: individual 'Fit' and sustainable community development.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49(3): 426-440.

Folke, C.(2006). Resilience: The Emergence of a Perspective for Social-ecological systems Analyses. Global Environmental Change, 16: 253-267.

Frankenberger, T., Mueller, M., Spangler, T.,& Alexander, S.(2013). Community Resilience: Conceptual Framework and Measurement Feed the Future Learning Agenda, Rockville: Westat.

Goodman RM, Speers MA, Mcleroy K, Fawcett S, Kegler M, Parker E, Rathgeb Smith S, Sterling TD, Wallerstein N.(1998). Identifying dimensions of community capacity to provide a basis for measurement. Health Education and Behavior, 25(3): 258-278.

Holling, C. S.(1973). Resilience and Stability of Ecological Systems. Annual Review of Ecology and Systematics, 4: 2-23.

Holling, C. S., Schindler, D. W., Brian, W. W., & Roughgarden, J.(1995). Biodiversity in the Functioning of Ecosystems: An Ecological Synthesis. In C. Perrings, K. G. Maler, C. Folke, C. S. Holling & B. O. Jansson(ed.), Biodiversity Loss: Economic and Ecological Issues. 44-83.

Howell, L.(2013). Global Risks 2013(Eighth Edition): An Initiative of the Risk Response Network. Geneva: World Economic Forum.

Lee, H.(2013). Global Risks 2013(Eighth Edition), Switzerland: World Economic Forum.

North, D. C.(1990).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ge University Press: New York.

Ostrom, E., Schroeder. L., & Wynne. S.(1993). Institutional Incentiv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frastructure Policies In Perspective. Westview Pres: Boulder.

Renschler, C. S., A. E. Frazier., L. A. Arendt., G. Cimellaro., A. M. Reinhorn., & M.. Bruneau.(2010). A Framework for Defining and Measuring Resilience at The Community Scale: The PEOPLES Resilience Framework. Technical Report, MCEER-10-0006. MCEER.

Tierney, K. & Bruneau, M.(2007).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Resilience: A Key to Disaster Loss Reduction. TR News, 250: 14-17.

**한그루(韓그루)**: 국민대학교 행정학과에서 학부와 석사(학위논문: 마을공동체 사업의 리질리언스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를 마치고 현재 유학준비 중이다. 도시 및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정책, 재난정책, 환경정책에 관심이 있으며, 특히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역사회 회복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hgueroo3@kookmin.ac.kr).

**하현상(河顯相)**: 미국 Florida State University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활성화, 지속가능한 발전과 회복력이며 최근 연구로는 「마을공동체 성과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중앙정부지원 사업을 중심으로」(2017, 공저), 「마을공동체 활동의 네트워크 변화분석: 마을을 찾아간 학생들의 마을공동체 활동을 중심으로」(2017, 공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거래비용이론 관점에서」(2016, 공저), 「Organizational Network Activities for Local Economic Development」(2016, 공저) 등의 연구가 있다(hsha@kookmin.ac.kr).

〈논문접수일: 2019. 4. 8 / 심사개시일: 2019. 4. 10 / 심사완료일: 2019. 5.3 〉

## Abstract

# Analysis on the Factors Affecting Sustainability of Community Projects: Based on Resilience Perspective



Han, Gueru

Ha, Hyunsang



There have been many discussions and studies about the achievement and revitalization of community projects. However, there have been limitations that the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could not be sustainable or are likely to be dependent to government financial aids. For this reason, we should take a step further in the study of the achievement and activation of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and develop them to community projects with self-sustainabilit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uild a theoretical model and then conduct an empirical study for sustainable community projects based on resilience perspective, which has recently been attracted for more objective and systematic analysis, and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through empirical studi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the use of local resources and characteristic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sustainable positive change in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value, and it is necessary to have self-financing ability to make a positive change in economic performance. Ultimately, sustainability of community projects should proactively employ factors such as the use of human resources, local resources and characteristics, and self-financing ability in order to promote the resilience of community projects, which means more secure and consistent sustainability. This study is more meaningful in that it is the first empirical study to explore the sustainability of community projects, based on the resilience perspective.


Key Words: Community Project, Resilience, Sustainability, Economic Performance, Social Value